

평화기원메시지

나라는 다르지만 ‘불법’의 인연을 진중히 여겨온 세 나라는 국민의 행복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이렇듯 불은(佛恩)에 보답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 자비, 평등, 화합, 공생이라는 크나큰 원력을 실천해 온지도 15회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4차 대회에서도 공감하였듯이 세 나라는 불교문화를 사회의 핵심 가치로 계승하면서 동북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끌어 왔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전달하고자 했던 평화에 대한 세 나라의 염원과 원력을 이곳 요코하마에서 다시 확인하고 널리 홍보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날 인류와 사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하고 더 나은 환경과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경제 민주화도 절실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인류의 평온과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을 지켜내면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것에 그 시작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찾아가는 가장 빠른 길 또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으며, 불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근본 마음이 궁극의 평온과 평화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계의 발원과 실천은 양극화로 흐르는 경제 불평등의 해소와 인성을 중시하는 민주적 가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세계인에 대한 부응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의 지성은 문화적 가치, 즉 불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수승한 동양의 정신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불교의 사상이 담고 있는 문화와 정신의 가치를 널리 전하겠다는 불교도인의 소명(召命)과 다름이 없으며, 금번 대회

의 주제인 ‘현대 사회에 있어 불교도의 역할’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한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불교계는 불교의 수승(殊勝)한 가르침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각자의 노력과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상의 중심에 서지 못했던 시대에도 인류의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쉼없이 정진해 왔습니다.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의 세상과 후손을 위한 선명한 밑그림을 그려온 것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인의 본연한 자세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제15차 한중일 대회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불교의 근본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제15차 한중일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회향을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불기2556(2012)년 10월 2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